

※<어휘의 의미 관계>에 대해 알아보자.

- ㄱ. **유의어**: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.
(책방-서점, 아이-어린이)
- ㄴ. **동음어**: 서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름.
(내리는 눈-사람의 눈)
- ㄷ. **반의어**: 서로 의미가 반대를 이룸. (남자-여자, 좋다-싫다)
- ㄹ. **다의어**: 중심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님(신체의 일부/노동력)

※<반의 관계>의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!

☞ 어휘의 모든 자질이 달라야만 반의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. 오히려 다른 모든 자질은 같고 하나만 달라야 서로 반의어가 된다.

- 1) 총각: 동물+사람+미혼+남자+ 2) 처녀: 동물+사람+미혼+여자+
- 3) 남편: 동물+사람+기혼+남자+ 4) 아내: 동물+사람+기혼+여자+

그래서 총각↔처녀 / 남편↔아내만이 반의 관계를 이룬다.

※<자음 체계>는 꼭 암기해야한다.

조음위치 조음방법		조음위치	입술	혀끝	센 입천장	여린 입천장	목청
안울림소리	파열음	ㅂ, ㅃ, ㅍ	ㄷ, ㄸ, ㅌ			ㄱ, ㅋ, ㆁ	
	마찰음		ㅅ, ㅆ				ㅎ
	파찰음			ㅈ, ㅉ, ㅊ			
울림소리	비음	ㅁ	ㄴ			ㅇ	
	유음		ㄹ				

※<동화 VS 축약>을 구별해 보자!

- ㄱ. **동화**: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는 것.
(비음화, 유음화, 구개음화, 'ㅣ'모음역행동화...)
- ㄴ. **축약**: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두 개의 성질을 공유한 **새 음운 탄생**.

☞ 자음 축약에는 반드시 'ㅎ'이 필요하다.
(잃지→[일치], 만형→[마형])

※<품사 VS 문장 성분>의 차이점

☞ 낱말의 개별 성질은 품사이고 낱말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문장 성분이다.

- *나는 학교에 갔다
→나(대명사)+는(조사) 학교(명사)+에(조사) 갔다(동사)
- ☞ 나는(주어)+학교에(부사어)+갔다(서술어)

※<어간 VS 어근>의 차이점을 알아보자!

- ㄱ. **어간**: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.
→(변하는 부분인'어미'와 결합됨)
- ㄴ. **어근**: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.
- ☞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다.
*먹+다, 먹+고, 먹+으니...
→('먹-'은 어간, '-다, '-고, '-으니'는 어미)
☞('먹-'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)
- *뉘+개, 어른+스럽다...→('뉘, '어른'은 어근)

※<어간 VS 어미>에 대해 알아보자.

- 1) **어간**: 용언(동사, 형용사)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.
- 2) **어미**: 용언(동사, 형용사) 활용 시 변하는 부분.

※꼭 암기해야할 문법 기본 지식

- 1) <음절의 끝소리 규칙>:
받침 발음은 ㄱ, ㄷ, ㅂ, ㄴ, ㄹ, ㅁ, ㅇ 중 하나로 됨
i. (ㄱ, ㅋ→ㄱ / ㄷ, ㅌ→ㄷ / ㅂ, ㅍ→ㅂ
특히 ㅅ, ㅆ, ㅈ, ㅉ, ㅊ, ㅌ, ㅎ→ㄷ)
ii. (겹자음의 탈락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됨. 값→[갑])
- 2) <된소리되기>: 여러 환경에 의해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
특히 'ㄱ(ㄱ, ㅋ, ㆁ, ㄷ, ㄸ), ㄷ(ㅅ, ㅆ, ㅈ, ㅉ, ㅊ, ㅌ), ㅂ(ㅃ, ㅍ, ㅍ, ㅍ)' 뒤에 연결되는 'ㄱ, ㄷ, ㅂ, ㅅ, ㅈ'은 된소리로 발음
-국밥[국뽕] 깎다[깎따]
- 3) <거센소리되기>: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.
ㄱ+ㅎ=ㅋ, ㄷ+ㅎ=ㅌ, ㅂ+ㅎ=ㅃ, ㅅ+ㅎ=ㅆ -국화 [구과], 만형[마형]

- ※ 예사소리: ㄱ, ㄷ, ㅂ, ㅅ
된소리 (경음): ㄱ, ㄷ, ㅃ, ㅆ
거센소리 (격음): ㅋ, ㅌ, ㅍ, ㅈ

※<동사>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.

- ㄱ. 목적어 유무에 따라: 타동사-자동사
- ㄴ.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: 규칙 동사-불규칙 동사
- ㄷ. 의미의 중심성 여부에 따라: 본동사-보조동사

<명사>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.

- 1) ㄱ. **보통명사**: 여러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.
ㄴ. **고유명사**: 단일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.
- 2) ㄱ. **자립명사**: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쓰임.
(조사가 붙기도 함)
ㄴ. **의존명사**: 다른 말의 도움을 받아 쓰임.(반드시 꾸미는 말인 관형어를 동반함)

※**서술어로 사용되는 품사**

:동사, 형용사, 체언+서술격 조사

※**서술격 조사 <이다>의 특이점!**

☞ <이다>는 용언(동사 혹은 형용사)처럼 보이나 서술격 조사임에 유의하자. 결국 조사이기 때문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에 붙어서 사용된다. 그러나 조사이지만 용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.

*이다, 이고, 이니, 이어서...

(이)→ 어간 / (-다, -고, -니, -어서) →어미

※**'-이': 명사 파생 접미사 vs 부사 파생 접미사**

*높이(부사) 날다.

:높이가 '서술어'를 수식 →('이'는 **부사 파생 접미사**)

*높이(명사)를 재자.

:높이가 '조사'와 결합됨 →('이'는 **명사 파생 접미사**)

※<품사의 종류>에 대해 알아보자.

- 1) **명사**: 물건이나 장소, 사건, 추상적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(자전거, 식당, 사랑 등)
- 2) **대명사**: 명사를 대신하는 말 (그, 그녀, 이것, 저것 등)
- 3) **수사**: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(하나, 첫째 등)
- 4) **조사**: 자립형태소나 조사, 어미 등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말 (우리는, 집에서, 선생님이 등)
- 5) **동사**: 동작을 나타내는 말 (먹다, 자다, 공부하다 등)
- 6) **형용사**: 사물의 모습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말 (예쁘다, 둥글다, 빨갛다 등)
- 7) **관형사**: 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 (그 학생, 새 옷 등)
- 8) **부사**: 용언(동사, 형용사)을 꾸며주는 말 (매우 어렵다, 무척 예쁘다 등)
- 4) **감탄사**: 화자의 감정 등을 간단히 나타내는 말 (야호, 얼씨구 등)

※**문장 성분**

- ㄱ. **주성분**: 1) 주어-무엇이, 누가
 2) 서술어-어찌하다, 어떠하다
 3) 목적어-'을/를'이 붙은 대상
 4) 보어-되다/아니다 앞에서 '이/가'가 붙는 말
- ㄴ. **부속성분**: 1) 관형어-체언을 꾸밈
 2) 부사어-용언을 꾸밈
- ㄷ. **독립성분**: 감탄사나 접속부사

※<능동, 주동, 피동, 사동>에 대해 알아보자

- 0) 능동적=주동적=스스로 움직임!
 1) **피동**: 주체가 일을 **당함** (문이 닫힌다)
 2) **사동**: 주체가 일을 **시킴** (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.)

▶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하지만 이중사동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.

- 1) 그는 그녀를 울렸다.(○) →사동표현: [울+리(사동)+었+다]
- 2)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.(○)
 →사동표현: [울+게 하(사동)+었+다]
- 3)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.(X) →불필요한 이중사동
- 4) 그는 그녀를 재우다.(○)
 →**이중사동 허용**: [자+이(사동)+우(사동)+다]
- 5)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.
 →**이중사동 허용**: [먹+이(사동)+게 하(사동)+다]

☞ 3)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)과 2)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※**조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! (암기사항☆)**

- ㄱ. **격조사**: 다양한 격을 형성. (이/가, 을/를, 예/에서, 이다~)
- ㄴ. **접속조사**: 낱말을 이어줌. (와/과, 이랑, 하고~)
- ㄷ. **보조사**: 낱말의 뜻을 더해 줌. (도, 만, 조차~)

※<실질vs형식> 의미

- ㄱ. **실질** 의미: 어근, 어간
- ㄴ. **형식** 의미: 조사, 접사, 어미

※**어간은 실질 형태소!**

☞ **자립 형태소**(명사, 대명사, 수사, 관형사, 부사, 감탄사)는 모두 **실질 형태소**이다. 그렇다고 실질 형태소의 모두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다. 바로 어간 때문이다. 어간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라 마치 의미가 빈약한 형식(문법)형태소처럼 보인다. 하지만 **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어미가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.** 이를 고려하여 출제자는 오답 ⑤를 만든 것이다.

※ **단어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!**

- ㄱ. **단일어**-(1어근)
- ㄴ. **복합어**-(합성어: 2어근 이상, 파생어: 어근+접사)

※**서술어의 자릿수를 암기해두자!**

: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

(→서술어를 제외하고 개수를 판단)

ㄱ. **1자리 서술어**: 주어+(서술어)

ㄴ. **2자리 서술어**: 주어+목적어+(서술어), 주어+보어+(서술어)

ㄷ. **3자리 서술어**: 주어+목적어+부사어+(서술어)

*철수가 가다 →(1자리 서술어)

*철수가 밥을 먹다, 철수가 학생이 되다. →(2자리 서술어)

*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다 →(3자리 서술어)

※<**조사 vs 어미**>를 알아보자!

1) 접속조사: 주로 체언을 연결

2) 연결어미: 서술어가 포함된 2개의 문장 단위를 연결

※<**지칭어 vs 호칭어**>에 대해 알아보자!

ㄱ. **지칭어**: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 (남편, 아내)

ㄴ. **호칭어**: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 (여보)

☞(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지칭어와 호칭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음)

※**지시 대명사**에 대해 알아보자!

ㄱ.**이것**: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물

ㄴ.**그것**: 화자에겐 멀지만 청자에게 가까운 대상물

ㄷ.**저것**: 화자와 청자에게 먼 대상물

※<**반모음**>에 대해 알아보자!

1) 'ㅣ'계열: ㅣ+ㅏ=ㅑ, ㅣ+ㅓ=ㅕ, ㅣ+ㅗ=ㅛ, ㅣ+ㅜ=ㅠ... 등 단모음을 만나 이중모음을 형성함.

2) 'ㄴ/ㄷ'계열: ㄴ+ㅏ=ㄴㅑ, ㄷ+ㅓ=ㄷㅕ 등 단모음을 만나 이중모음을 형성함.

☞ 'ㄴ/ㄷ'계열은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음의 개수는 2개이며 이중 모음은 단모음+단모음이 아니라 반모음+반모음이다.

※**헛갈리는 것들!**

☞(ㅐ, ㅑ, ㅕ, ㅠ)는 단모음, 'ㄴ'는 이중모음.

※**문장의 짜임**

ㄱ.**홀문장**: 주어+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.

ㄴ.**겹문장**: 1)안은 문장: 절이 들어간 문장

2)이어진 문장: 연결어미로 이어진 2개 이상의 문장.

※<**절의 종류**>에 대해 알아보자.

ㄱ.**명사절**: ~기/음 이 붙음

(*집에 가기 싫다. *그가 정당했음을 알게 되었다.)

ㄴ.**부사절**: ~게, 도록 등이 붙음

(*조용하게 말해. *죽도록 보고 싶다.)

ㄷ.**관형절**: ~ㄴ, 은/는 이 붙음

(*예쁜 꽃을 받았다. *공부하는 철수를 보아라.)

ㄹ.**인용절**: ~(라)고 가 붙음

(*철수는 "올해는 꼭 합격할거야"라고 말했다.)

※**음운의 개수**에 대해 주의하자!

☞자음과 모음은 무조건 1음운이다

(된소리, 거센소리, 이중모음도 1음운)

☞초성의 'ㅇ'은 음운이 아니다!

※<**높임법의 종류**>를 알아보자.

1)**주체 높임법**: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높임.

-(선생님께서 가시다)

2)**상대 높임법**: 청자를 높임.

-(학생 여러분!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요)

3)**객체 높임법**: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임.

-(내가 할머니께 돈을 드렸다)

♣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높임법이 사용될 수 있다.

*어머니! 아버지께서 어제 만나신 할머니께 제가 돈을 드렸어요.

(화자: 나, 주체: 아버지, 청자: 어머니, 객체: 할머니)

→(주체 높임: 만나신, 청자 높임: ~요, 객체 높임: 드렸~)

※**형태소**에 대해 알아보자!

ㄱ.**실질 형태소**: 자립 형태소 모두, 어간

ㄴ.**형식 형태소**: 어미, 접사, 조사

ㄷ.**자립 형태소**: 명사, 대명사, 수사, 관형사, 부사, 감탄사

ㄹ.**의존 형태소**: 형식 형태소 모두, 조사

☞어간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라 마치 의미가 빈약한 형식(문법)형태소처럼 보인다. 하지만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어미가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.

※**비음화 법칙?**

☞비음 아닌 자음(ㄱ, ㄷ, ㅂ)이 비음(ㄴ, ㄹ)을 만나 비음(ㅇ, ㄴ, ㄹ)으로 바뀌는 현상.

(국물→궁물, 꽃말→꼰말→꼰말, 밥물→밤물)

※<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>의 종류.

- 1)부정의 호응: '결코/별로/전혀/절대로' +부정의 표현
 - *나는 **결코** 그 일을 할 수 **없어**.
 - *그 물건은 **별로** 좋지 **않은데**.
 - *그 생각은 **전혀** 새로운 것이 **아니야**.
 - *나는 너를 **절대로** 사랑할 수 **없어**.
- 2)가정의 호응: '만약/만일~면', '마치~처럼/~같이', '비록~라도'
 - ***만약** 비가 온다면 수업준비를 해 와라.
- 3)인과의 호응: '(결과) 왜냐 하면 ~(원인, 이유)~ 때문이다'
 - *배가 고프다 **왜냐 하면** 하루 종일 굶었기 **때문이다**.
- 4)추측의 호응: 아마 ~ㄹ 것이다'
 - *이번에는 **아마** 내가 일등일 **것이야**.
- 5)높임의 호응:
 - '높임의 주격 조사(-께서)+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(-시-)'
- 6)의문의 호응: '설마 ~랴?', '도대체 ~냐?'
 - ***설마** 영희가 이기랴?
 - ***도대체**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?

※어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선어말 어미: 시제, 높임 (선생님께서 가+**시**+**었**+다)
- ㄴ.어말 어미: 전성, 연결, 종결 (밥 먹기가 힘들**면** 말해라)

※시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: -ㄴ-/ -는- (철수가 밥을 먹**는다**.)
- ㄴ.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: -었-/-았- (철수가 밥을 먹**었다**.)
- ㄷ.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: -겠- (밥을 다 먹고 숙제를 하**겠다**.)
- ㄹ.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: -더- (철수가 밥을 먹고 있**더라**.)

※종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평서형 종결 어미: -다, -네, -오, -습니다. -느니라, -렸다, -마... (꽃이 예**쁘다**.)
- ㄴ.의문형 종결 어미: -느냐, -니, -냐, -습니까, -까... (꽃이 예**쁘니**?)
- ㄷ.감탄형 종결 어미: -구나, -군, -로구나, -어라/-아라(형용사에서)... (꽃이 예**쁘구나**!)
- ㄹ.명령형 종결 어미: -어라/-아라, -려무나, -어/-아... (철수야, 밥 먹**어라**.)
- ㅁ.청유형 종결 어미: -자, -세 (철수야, 밥 먹**자**.)

※연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대등적 연결 어미: -고, -며, -면서, -거나 -거나, -든지... (꽃이 피**고**, 새가 운다.)
- ㄴ.종속적 연결 어미: -면, -니, -려고, -러... (봄이 오**면**, 꽃이 핀다)
- ㄷ.보조적 연결 어미: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오는 '-아/-어, -게, -지,-고' (손을 잡**아** 버렸다.)

※전성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관형사형 전성 어미: -는, -(으)ㄴ, -(으)ㄹ (지금 밥을 먹**는** 사람이 누구냐?)
- ㄴ.명사형 전성 어미: -(으)ㄴ, -기 (역지로 옮**기는** 쉽지 않다.)
- ㄷ.부사형 전성 어미: -이, -게, -(아)서, -도록 (조용하**게** 있어라.)

※수식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관형어-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을 꾸밈
- ㄴ.부사어-용언(동사, 형용사)과 문장을 꾸밈

※<당신>의 쓰임.

- ㄱ. 2인칭 높임
- ㄴ. 3인칭 높임
- ▶ 일상에서 <자기>가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의미는 아니다.

※<우리>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자.

- ㄱ. 1인칭: 단수형 (철수야! **우리** 집에 놀러가자.)
- ㄴ. 1인칭+2인칭: 복수형 (**우리가**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보자)

※<음운의 종류>에 대해 알아보자.

- 1) 분절 음운: 자음, 모음
- 2) 비분절 음운: 소리의 길이, 억양 등

*소리의 길이에 따른 비분절 음운:

긴소리-동굴의 <굴>, 하는 <말>, 먹는 <밤>, 곤충 <벌>...
 짧은 소리-먹는 <굴>, 타는 <말>, 어두운 <밤>, 받는 <벌>...

*소리의 억양에 따른 비분절 음운:

가 ˊ:의문문 / 가 → 혹은 가 ˋ: 평서문 이나 명령문 등

※<두음법칙>에 대해 알아보자.

- ㄱ. 'ㄹ'과 'ㄴ'이 |, ㅈ, ㅊ, ㅍ, ㅍ 앞에서 사라짐.
- ㄴ. 'ㄹ'이 'ㅈ, ㅊ, ㅍ, ㅍ, ㅍ, ㅍ, ㅍ, ㅍ'앞에서 'ㄴ'으로 바뀜.
(녀자→여자, 량심→양심, 래일→내일...)

※번역투 고치기

(번역투가 비문법적인 표현은 아니나, 간결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한다)

<~것에 지나지 않는다> →'~것 뿐이다'

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.
→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 뿐이다.

<~을 갖다> →'을 하다'

철수는 방송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.
→철수는 방송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.

<~이 되어지다> →'~하다'

소비자에게서 외면된 상품은 나중에 폐기처분되어진다.
→소비자가 외면한 상품은 나중에 폐기처분한다.

<~에 대해 / 관해> →'~을(를)'

사랑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.
→ 번역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.

<~에도 불구하고> →'~하(이)지만'

큰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계속 했다.
→크게 좌절했지만 그는 도전을 계속 했다.

<~으로 인해> →'~덕분에'

새 연필로 인해 글쓰기가 편해졌다.
→새 연필 덕분에 글쓰기가 편해졌다.

<~에 의해 / 의한> →'~으로 / ~은'

위대한 발명에 의해 세상은 바뀐다.
→위대한 발명은(으로) 세상을 바꾼다.

<~로부터> →'~이(가)'

친구로부터 온 선물 →친구가 보낸 선물

<가장 ~하는 것 중에 하나> →'가장~하(있)는'

농구는 가장 재미있는 운동 중 하나이다.
→농구는 가장 재미있는 운동이다.

<~하는 중이다> →'~하고 있다'

눈이 오는 중이다.→ 눈이 오고 있다.

<~에 있어서> →'~에서'

글쓰기와 번역에 있어서 → 글쓰기와 번역에서

<~을/를 요하는> →'~해야 하는'

치료를 요하는 질환 → 치료해야 하는 질환

<~경우에는> →'~하(이)면'

지각하는 경우에는 → 재발하면

<모음조화>에 대해 알아보자!

☞양성 모음(ㅏ, ㅑ계열)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(ㅓ, ㅡ계열)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. '〈잡-〉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-아 라와 만나고 <먹-〉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-어라와 만난다.'

※<자음군 단순화> vs <음절의 끝소리 규칙>

- ㄱ.자음 군 단순화: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되어 발음 됨.
- ㄴ.음절의 끝소리 규칙: 받침 발음은 ㄱ, ㄷ, ㅂ, ㄴ, ㄹ, ㅁ, ㅇ 중 하나로 교체 발음 됨.
(ㄱ, ㅋ→ㄱ / ㄷ, ㅌ→ㄷ / ㅂ, ㅍ→ㅂ / ㅅ, ㅆ, ㅈ, ㅊ, ㅌ, ㅎ→ㄷ)

*값[갑], 삶지[삼찌], 앓다[안따]

☞('ㅁ'에서 'ㅅ'탈락, 'ㅌ'에서 'ㄹ' 탈락, 'ㄴ'에서 'ㄷ'탈락)

*밖[박], 꽃[꼇], 부엌[부억] ☞(ㄱ→ㄱ, ㅌ→ㄷ, ㅋ→ㄱ)로 교체

▶(ㄱ, ㄷ, ㅂ, ㅅ, ㅈ)은 쌍자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됨.→(각각 ㄱ, ㄷ, ㅂ, ㅅ, ㅈ로 교체됨!) ☞탈락되는 것이 아님!

▶받침 발음의 탈락이나 교체냐에 따라 <자음 군 단순화=탈락=겹받침 적용>과 <음절의 끝소리 규칙=교체=된소리 적용 포함>으로 구분되지만 결국엔 <자음 군 단순화>도 받침이 ㄱ, ㄷ, ㅂ, ㄴ, ㄹ, ㅁ, ㅇ 이외에는 발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<자음 군 단순화>를 <음절의 끝소리 규칙> 현상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.

<구개음화>에 대해 알아보자!

ㄷ, ㅌ+ㅣ, ㅣ계열의 모음 → ㅈ, ㅊ
(밭이[바치], 굳이[구지], 해돋이[해도지])

☞<구개음화>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기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. 그리고 보통은 '굳이'처럼 두 형태소가 만날 때 이루어지나, 중세국어에서는 <모던>의 (ㄷ+ㅣ+ㄴ)처럼 한 형태소에서 이루어지도 한다.

※'ㄴ'음 첨가 현상: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'이, 야, 여, 요, 유'인 경우에는, 'ㄴ' 음을 첨가하여 [니, 냐, 녀, 뇨, 뉴]로 발음한다.

숨-이불[숨 : 니불], 한-여름[한녀름], 국민-윤리[궁민누리]